저는 컴퓨터과학과에 재학 중인 2018147558 김정주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대학에 입학하여 컴퓨터과학과 학생으로서 2년을 공부하고 군입대를 하여 현재는 복무를 마치고, 복학중에 있습니다. 군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와보니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고, 저의 생각 또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공부하다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라고 느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이 제가 운영체제를 수강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해오다보니 어느샌가 제가 정말로 알고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조사해서 터득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의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고, 운영체제의 수업이 그 노력의 첫걸음이 되고 싶습니다. 1학기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